

# 21세기 환경비전과 중점 추진방안

환경부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21세기 환경비전과 중점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실행에 들어 갔다.

이에 주요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 소개한다.

## 2 환경관리체제의 선진화

### 가. 有害化學物質에 대한 과학적 관리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을 보강하고 危害性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急性毒性에 중점을 둔 유해화학물질 관리체제를 發癌性, 環境殘留性, 生物濃縮性까지 고려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발암성이 확인된 아세트아미드, 2-나프틸아민등 280여종을 포함하여 총 1,000여종의 유해화학물질로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세계적인 수준의 유해화학물질 시험시설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3만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조사와 危害性 再評價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有害性 시험시설 운영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環境毒性전문 시험시설을 설치(생태독성학적 기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94	'97	2000	2005
유통되는 화학물질	31천종	32천종	40천종	48천종
유해화학물질지정	467종	600종	1,000종	1,500종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환경단체 및 민간전문가도 참여케 하여 화학물질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수입·취급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안전점검을 활성화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및 주민의 알 권리를(right to know) 보장하기 위해 有毒物 유통·저장시설의 立地段階에서부터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할 방침으로 있다. 또 국립환경연구원 내 화학물질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유독물의 안전관리체제 및 유출 사고시의 緊急防除體制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억제 및 低毒性 화학물질 사용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PCB등 代替物質이 있는 특정유해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이 없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용량을 축소하고 G-7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쓰는 공정, 低毒性 代替物質을 사용하는 공정등을 집중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 나. 환경기술의 일류화 및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綜合環境研究團體 조성하기 위해 國家環境技術長期計劃을 수립하고, 환경부문 연구개발투자비를 OECD 국가수준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고효율 집진기술, 배연탈황기술, 고도정수처리기술등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에 국

제적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각종 환경 연구기관 및 관련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1단계('97년까지)	2단계('98~2001)	3단계(2001이후)
핵심기술 개발	첨단환경기술 개발	수출 전략화

환경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환경분야 핵심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방지산업과 재활용산업에 기술자금 및 세제지원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環境技術情報網을 구축하여 환경산업체에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環境親和的 기업경영체제 도입에 따라 기업이 제품설계등 생산 공정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오염을 줄이고,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개선계획을 마련·실천하는 자율적 기업환경관리체제 구축할 계획이며,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되면 배출시설 허가·지도 점검등 면제할 방침이다.

또 국제 環境經營 認證制度(SIO 14000) 실시를 위한 국내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 다. 국민의 환경보전 및 監視者 역할 제고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 생활화 정착을 위해 물자와 에너지 절약, 廢資源의 재활용 확대등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을 생활혁명 차원에서 정착화할 것이다. 또 여성·청소년들의 환경보전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환경단체 중심의 다양한 市民環境講座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각급학교에서 현장체험을 통한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환경봉사활동을 성적·학점등에 반영하거나 포상할 방침이다.(※ 환경전공 대학생에 대하여는 정부기관등에서 연수)

住民參與型 環境管理 및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각종 환경오염자료와 행정정보를 정부와 주민이 공유하는 체제를 확립함과 아울러 주민의 환경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유해한 毒物物質의 배출등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정책대안 발굴 및 정책결정 참여촉진을 위하여 民間環境基金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등 기초단체별로 민간환경감시연합 등의 기구를 조직, 주민들의 지역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지원(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로 육성)하고 각 수계별 지역사회단체와 학교등이 중심이 되어 오염감시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공단이나 배출업소 밀집지역에 자율적인 환경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 3. 지구환경보전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 가. 한반도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한반도 환경의 남북한 공동 관리에 따라 생태계 공동조사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관리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 환경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南·北 환경분야의 법과 제도를 비교연구하여(※. 한반도 국토환경의 종합진단,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환경기술 개발등을 남북한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 모색) 산성비, 황해오염등 지역환경문제에 대응하여 南·北韓 공동 입장을 정립할 것이다. 地域環境懸案의 해결을 위한 인접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본등 인접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兩者間 環境協定에 의한 공동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東北亞 環境協力會議등을 통한 지역내 환경문제의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UNDP, ESCAP, UNEP등 UN기구 주관하에 남·북한 및 인접 국가와의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역할 증대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滅種危機 野生動物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등 주요 국제환경협약 관련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環境淸淨技術移轉 및 소비패턴전환에 관한 국제워크샵등을 개최하여 “議題 21(Agenda 21)”의 이행에 적극기여할 계획이며 기후변화등 지구환경문제의 과학적 조사사업에 동참하는 한편, 국제환경관련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地球環境金融(GEF) 등에 출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開途國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랑으로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도국 공무원 교육, 환경전문가 파견, 機資材 공여사업을 활성화하고 對外經濟協力

基本(EDCF)을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등 環境市場의 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環境기술 및 기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國內環境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에 능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환경기준 및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環境淸淨技術의 개발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장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WTO, OECD등이 주도하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4. 소요자원 및 분담체계

목표년도인 2005년까지 環境비전 추진에 소요되는 자원은 약 60조원으로 公共部門 33조원(국고 12조원, 지방지 21조원), 민간부문 27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반기중 環境개선종합대책 수립시 소요자원을 구체화)

자원 확보 및 분담체계는 汚染 原因者負擔原則을 충실히 적용함에 따라 배출부과금, 環境개선부담금, 廢棄物預置金 제도 등은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 억제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 항목, 부과요율등을 확대하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 항목, 부과요율을 확대하고 上·下流 자치단체간 수질淸淨기초시설 운영비 분

담,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분담등 受惠者分擔原則도 보강할 계획이다.

환경관련 使用料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上·下水道料金, 쓰레기 봉투료 등의 사용료(user charge)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環境기초 시설의 民資誘致 확대 및 여타 재원확충방안 검토를 위해서는 상하수도시설,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건설에 民間資本誘致를 확대함과 아울러 環境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민간참여 확대 추진하는 한편 영세한 각종 環境關聯負擔金의 통합 또는 公債발행 방안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環境정책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環境의 考慮를 강화해 나가고, 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는 環境친화적인 生産·消費構造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21世紀에는 온 국민이 맑고 깨끗한 環境속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21世紀 環境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부 실천계획인 『21세기 環境改善綜合對策』를 마련, 학계·전문가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環境보전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下半年期 중에 확정·추진할 것이다.

## INPOCO '96 신청 안내

### - 제8회 국제환경오염방지산업전 -

- 목적 : · 環境오염방지 기술 향상 도모  
· 國內·외 우수기술 소개 및 제품 보급  
· 미래의 올바른 環境산업 육성
- 기간 : 1996. 4. 9 ~ 4. 13(5일간)  
· 개관식 : 4. 9(화) 오전 11시  
· 개장시간 : 10:00 ~ 17:00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별관
- 주최 : 環境보전협회

- 후원기관(예정) : 環境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진흥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선일보사, 매일경제신문사
- 신청기간 : '95. 8. 1 ~ '96. 2. 29까지 선착순(전시가용 면적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접수처 : 環境보전협회 홍보부(Tel. 753-7640)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